

# 문학지의 장르문화, 비평지 창간붐

「현대예술비평」 등 5종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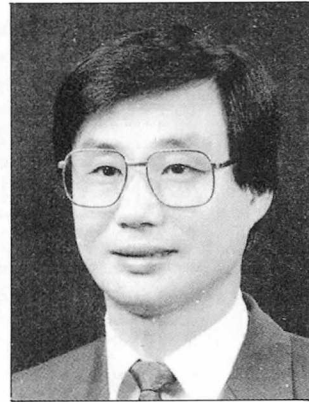
기존 평론계에 가해지던 비판들을 발전적으로 수렴하고 비평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들 비평전문지는 현장비평과 이론비평을 병행하면서 참여한 사회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문학이론과 여타의 예술장르까지 수용하는 폭넓은 문예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장석주



임현영



김옥동



권성우

기존의 문학지나 문예지가 대부분 종합지의 성격을 표방하면서 시나 소설 등의 창작물과 비평문을 함께 수용해왔었던 가운데, 최근 비평전문지들이 속속 창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단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평론계에 가해지던 비판들을 발전적으로 수렴하면서 비평의 독자적 위상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 비평전문지는 특히 급변하는 사회의 여러 양상들을 해석해내는 나름의 사회 인식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문학비평 중심으로 전개되던 비평의 층위가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월간에서 계간으로 재창간되면서 '비평·연구전문지'로 탈바꿈한 「한길문학」(한길사, 주간 임현영)은 90년대 비평문학이 "후기 산업사회의 체질개선에 알맞는 미학양식으로서 민중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가치체계의 재창조"를 중요한 직능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비평문학이 창작문학에 대한 '시너비평' 또는 '행장비평'의 기능으로 전락하는 한편 현실적인 창작과 거리가 먼 전문연구 수준에서 자아도취하거나 상업주의에 편승하고 특정 유파나 운동의 당위론적 선전도구로 작용했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창작물에 대한 실증적 평가작업을 위한 실천비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한길문학」은 아울러 새로운 비평이론 개발과 해외문학론 소개 및 고전문학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미술·음악·연극 등 문예미학 일반에도 지면을 할애해 "문학비평의 범예술적 선도 기능을 견지"할 계획인데, "범문단적 비평전문지"를 추구하면서도 80년대를 이은 민족문학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에 창간예정인 계간 「현대예술비평」(청하)은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국문

학이론의 소개작업과 함께 영화·연극·음악·미술·무용 등 문학과 인접한 예술장르에 대한 다양한 비평작업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옥동(서강대 영문과), 김희영(외국어대 불어과), 장진길(홍대 독문과), 장석주(문학평론가, 청하 대표)씨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잡지는 특히 '엄혹한 서평문화의 정착'을 위해 작품발표지면을 담보로 한 잡지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기득권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관점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는 '비평의 자유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비평의 지형학은 배타적 할거주의, 무반성적이고 과렴치한 가치 독점적 태도, 부박한 저널리즘이 유포하는 선정적 화제주의, 타성화되고 있는 현실 추수주의,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이념의 극단적 경사 등으로 역동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진단하에 새로운 비평의 존재양식을 모색하고 있는 특별좌담을 비롯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특집으로 기획한 창간호는, 이밖에도 '한국현대문학작품 재조명'과 '오늘의 세계문학' '다시 읽는 비평사' 등을 고정 기획물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예술비평」과 함께 5월중으로 창간될 「현대비평과 이론」(한신문화사)은 각 대학 영문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반년간지로 해외 현대문학이론 소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정호(중앙대), 장경렬(서울대), 김옥동(서강대), 최영(이대)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잡지라기 보다는 본격 학술논문 위주의 단행본 성격을 띠고 있다. 신비평 이후의 새로운 현대문학이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 수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색, 무비판적인 해외이론의 유입과 적용에서 과생된 '혼란함'을 극복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새로운 작품

분석들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창간취지이다. 영미이론뿐만 아니라 제3세계 이론들도 폭넓게 소개해나갈 예정.

한편 현재 가장 젊은 비평세대로 불리우는 권성우, 박철화, 이광호씨를 편집동인으로 한 「비평의 시대」(문학과지성사)가 무크 형태로 6월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젊은 세대들의 문학'이란 관점에서 90년대 문학을 전망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영상매체에 의해 급속히 위축돼가는 활자매체인 문학의 위상 회복을 중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평단에 대한 비평작업으로 메타비평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창간호에서는 비평 고유의 역할, 60년대 이후 문학개념의 변화과정, 한국문학에서의 '근대성' 문제, '통일문학' 등에 대한 젊은 필자들의 평문들을 기획했는데, 문화의 여러 장르들을 포괄하면서 문학적 기능의 다양한 실험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계간 「오늘의 문예비평」(지평)은 또 하나의 비평전문지로서의 의미와 함께 이른바 '지역문학'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모룡, 남송우, 박남훈, 이상금, 정해조, 정형철, 황국명씨 등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평론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잡지는 우선, 사회전반에 걸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결과된 지방의 문화적 열악성을 기본적 문제로 제기하면서 "서울 중심의 문학구조로부터 탈중심화를 지향하는 지역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작업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80년대의 문학세대가 전세대에 대한 창조적 비평작업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대논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좌담 '오늘의 비평과 지역문화의 전망', 포스트모더니즘 특집 등과 올 일사분기 평론목록을 수록했다.

이처럼 최근 비평전문지들이 잇따라 창간되고 있는 현상은 그동안 시나 소설에만 국한되었던 문학지의 장르문화 현상이 비평의 영역에까지 확산되었다는 점 말고도 창작물과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비평의 특수성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평단의 중론이다. 즉 잡지 독자층의 분화가 본격적인 비평전문지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비평외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새로운 연대를 맞은 비평계 내부의 자기반성이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기존 비평계가 비평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상업비평' '재단비평' 혹은 '분과주의' 등으로 불리우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이론의 무분별한 유입이나 지나친 이데올로기 편향의 평론작업은 결과적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유효한 문학이론의 빈곤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상비평에 치중한 '무자격' 평론가들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비평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현장비평과 이론비평의 병행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은 나름의 편집방향을 지니면서도 참여한 사회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문학비평이론과 문학 이외의 예술장르까지 수용하는 폭넓은 문예이론을 모색하려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비평전문지들이 평론계 내부의 자기검색 기능과 함께 문화 전반에 걸친 문학의 선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정소연 기자